

어린이집 화장실의 바닥마감 및 색채에 대한 사례

이 지 숙(군산대 교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아이 한명 낳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동이 영유아기에 집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육환경의 안전과 심미성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시설내 여러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기능 및 색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호남지역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14개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입지조건과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 시설의 설비기준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인증 지침서(보건복지부, 2010)에서도 보육시설의 계단, 화장실, 세면장 바닥은 영유아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영역6 안전영역에서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우수한 수준’이고,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 두 군데 있거나 정기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이나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해당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한편, 평가기준에는 영유아의 조화로운 감성발달을 배려한, 보육시설의 색채계획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사대상시설의 화장실은 건물의 복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거나, 개개의 보육실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인접한 보육실이 화장실 한 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연결되어 있었다. 화장실 내 좌변기와 좌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하거나, 칸막이 없이 노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변기는 대부분 칸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화장실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였다. 화장실의 바닥 마감재로 주로 타일이 사용되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구멍뚫린 고무판을 깔아놓은 사례가 있었다. 화장실 바닥마감재로 논슬립 타일(non-slip tile)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많아서 위험하였고, 특히 미끄럼 방지용으로 깔은 고무판은 아이들 발이 충분히 들어가 질 수 있는 크기이어서 오히려 고무판을 깔아놓은 상태가 더 위험하였다. 화장실 색채계획의 경우, 바닥, 벽의 마감재 색은 전반적으로 흰색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기사이의 칸막이 색은 강한 대비가 되는 색상과 채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화장실 바닥마감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논슬립 타일을 사용을 강제하고, 바닥은 물기없이 사용하도록 관리상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의 색채계획은 따뜻한 느낌의 심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색채계획이 되어 영유아들의 조화로운 감성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의 긴 체류시간을 고려할 때, 향후 평가인증지표에 영유아들의 미적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